# 유럽내 소형·승합차 생산공장 분포현황(I)

정 동 수 박사
KIMM엔진환경그룹
책임연구원

월드카의 생산이나 자동차 대기업간의 통합 등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미 국제화가 되어 국적의 개념은 나날이 퇴색되어가고 단지 성능과 가격면에서 생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EU 연합국가가 주축을 이루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지가 오래된 유럽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자기나라에서 생산된다고 모두 자기나라 차도 아닌 것이고, 자기나라 기업의 차라도 남의 나라에서 생산되면 자기나라 차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국제화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몇몇 주요차종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생산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차종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럽 내에서 소형·승합차를 중심으로 생산 공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국가별, 회사별로 어떠한 추세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 번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서유럽 국가를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베네룩스3국, 스칸디나비아3국, 아일랜드의 16개국으로 한정하고, 동유럽국가로는 러시아, 터키, 그리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보스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21개국으로 분류한다.

서유럽 국가중에서 생산공장 수가 많은 나라부터 열거하면 독일(22개), 영국(18개), 프랑스·이태리(각16개), 스페인(11개), 포르투갈(5개), 벨기에(4개), 스웨덴(3개), 오스트리아(2개), 네덜란드(1개), 핀란드(1개)의 순이고 생산 공장이 전혀 없는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의 4개국이다.

동유럽에서 자동차 공장이 많은 나라 순으로 열거하면 폴란드(10개), 터키(8개), 러시아(7개), 체코(3개), 헝가리(2개), 루마니아(2개), 우크라이나(2개), 슬로베니아(1개), 보스니아(1개)의 10개 국가이고 생산공장이 없는 나라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몰도바, 라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11개 국으로 생산공장이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보다 1개국 더 많은 실정이다.

국가별로 볼 때 22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Volkswagen 그룹 5개, Daimler-Crysler사 4개, BMW사 3개, Porsche사 1개, Karmann사 2개, 미국의 GM사 3개, Ford사 2개, 일본 Toyota사가 1개로 유럽내의 타 국가 메이커가 한 곳도 없는게 특색이다.

16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Renault그룹이 6개, PSA(Peugeot-Citroen)사가 5개, Daimler-Chrysler사가 1개, Toyota 사가 1개, 그 외 PSA사 계열인 Heuliez사 1개, Renault 그룹 계열인 Matra사 1개, 피아트와 PSA 합작회사 Sevel 사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Ford나 GM사가 1개도 없는 것이 이색적이다.

역시 16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이태리의 경우, 피아트 그룹이 9개로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외 De Tomaso사, Maggiora사, Pininfarina사, 다이하쭈 차를 생산하는 Piaggio사, Bertone사, Lamborghini를 생산하는 Volkswagen그룹, Fiat와 PSA 합작 회사인 Sevel 사가 각 1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도 역시 미국의 Ford나 GM 회사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18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Jaguar, Aston Matin사를 인수한 미국의 Ford사가 7개, GM사가 2개, Rover사를 인수한 독일의 BMW사가 3개, Rolls-Royce사를 인수한 Volks wagen그룹이 1개, 프랑스의 PSA사가 1개, 일본의 Toyota사 1개, Nissan사가 1개, Honda사가 1개, GM 계열인 IBC사가 1개로 구성되어 이태리를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자동차 강국이 모두 몰려 자국의 유명 메이커까지 포기하는 가장 국제화된 국가라 할 수 있겠다.

11개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스페인은 유일한 자동차 회사인 세아트(Seat)를 독일 Volks wagen이 인수하여 2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 독일 Daimler-Chrysler사가 1개, 프랑스 Renault그룹이 2개, 프랑스 PSA사가 2개, 미국의 Ford사 1개, GM사 1개, 일본의 Nissan사가 1개, Suzuki사가 1개로 역시 영국처럼 이태리를 제외한 강국이 골고루 진출해 있다.

5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포루투갈의 경우 독일 Volkswagen그룹이 1개, 프랑스 PSA사가 1개, 미국 GM사가 1개, Ford사가 1개, 일본 Toyota사가 1개로 분포되어 있다.

4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벨기에는 독일 Volkswagen사가 1개, 미국 GM사가 2개(이중 1개사는 Volvo차 생산), Ford사가 1개로 분포되어 있다.

3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GM에게 50% 지분을 넘겨 준 Saab사가 1개, TWR에게 51% 지분을 넘겨 준 Volvo사가 1개, Volvo를 생산하는 Ford사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Chrysler차를 생산하는 Daimler-Chrylser사가 1개, Chrysler와 Benz를 생산하는 Magna-Steyr사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Volvo와 Mitsubishi사의 일부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동유럽에 대한 내용과 자동차 회사별 분포 동향 등은 다음 호에 소개 하기로 하겠다.

〈정동수박사:dsjeong@mailgw.kimm.re.kr〉